



♡ 유임정 10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민00 수강생		수강방식	직강
응시지역	서울		병행 여부	올인
공부경력	박쌤 강의 2년차 합격(장수)		등수	3
점수	1차	교육과정: 65    논술:18	2차	수업실연: 43.10    면접: 32.40    과정안: 12.30

좌우명	행복은 늘 가까이
-----	-----------

**0. 소개**

안녕하세요. 26학년도 서울 합격생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수기를 읽으며 공부 방법을 다잡곤 했는데 이렇게 저의 합격 수기를 쓸 날이 오다니 얼떨떨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곧 합격하실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 5번의 시험을 봤습니다. 제 의지로 시작하지 않아 긴 시간 방황을 하다가 2년 동안 직강 올인으로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여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수의 마음으로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25학년도는 1차 불합(-2) 이었으나 26학년도에는 1차 합격(+10)을 하였습니다. 1차에서 큰 점수 차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 방법과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공부 방법**

• 자기 자신에 대해 알기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왜 틀렸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5학년도 시험 복기한 것을 책상 벽에 붙여두고 보일 때마다 다시 보며 이 문제에서는 이것을 물어봤는데 나는 무엇을 답해서 틀렸는지, 어떻게 써야 채점자들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채점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암기할 때도 어떤 부분이 잘 안되는지, 왜 안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지 생각하며 저에게 맞는 공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25학년도 시험 준비(불합)	26학년도 시험 준비(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기가 안되면 될 때까지 무작정 외우고자 함</li> <li>▪ 암기가 안되는 것 마다 포스트잇에 써서 벽에 붙임 - 방대한 포스트잇 양 - 생각 없는 암기</li> <li>▪ 외웠다 생각하고 떼었는데도 잊어버림 - 자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안되는지 생각함 - 이해부족? 반복부족?</li> <li>▪ 생각하며 인출하려고 함</li> </ul> <p>ex) 자기중심적인 유아 - 그 다음은? 타인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겠지? 생각해보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p>

• **설명하며 공부하기**

강의 내용을 암기하고 이를 인출할 때 비전공자인 친구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인출하였습니다. 처음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하고 암기하기 바빠 내용을 인출하는 것에 그쳤으나, 두 번째 들을 때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수월했습니다. 이에 어려운 단어는 제가 이해한 대로 바꿔 말하고, 잘 안되면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왜 이 부분은 설명하기 어려웠는지 생각해보며 다시 책을 읽어보고, **핵심 단어를 꼭 넣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 내가 이번에는 의사소통에서 유아문학교육에 대해 알려줄게. 우선 유아들에게 문학교육이 왜 필요하냐!' 와 같이 중얼중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강의 중의 교수님 말씀을 모두 받아 적었는데 이를 기록한 내용을 보고 교수님의 강의를 떠올려 어떻게 설명해주셨는지 되짚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인출하다가 모고 시기에서는 답안지에 서술하는 것처럼 **문장형식**으로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올해 시험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본은 암기입니다. 암기가 어느 정도 돼야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핵심 단어는 꼭 넣어서 암기하십시오!

• **유입정 카페 적극 활용하기**

작년과 달리 카페 질문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공부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키워드 위주로 검색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선생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읽으며 궁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정말 간편하고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나를 사랑하기**

암기가 되지 않을 때나 문풀, 모고에서 틀릴 때마다 끊임없이 자책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직도 틀린다면 제 자신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모든 순간이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회피도 다 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공부할 때는 덜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과의 동지애(?)로 이겨내고자 하였습니다.

선생님들. 공부하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특하다고 칭찬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틀린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2. 1~10월 시기별 공부 계획 및 방법**

• **1~6월**

**<개각론 이론 강의>**

박수민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공부계획표를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고, 강의를 듣고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바로 암기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을 소단원으로 나눠 하루에 한 단원씩 암기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

는데, 일주일 만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잘 안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초반이니 계속 하면 외워진다 생각하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핵심인 것은 단어도 기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요약본은 암기가 어느 정도 된 후 요약본에 추가해야 할 내용을 책을 보지 않고 넣었습니다. 포스트잇이나 빈칸에 작성하니 나름대로 단권화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책을 보고 다시 암기하고 작성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모고날 까지 요약본에 추가하고 체크하며 단권화를 해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암기하였으며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 표시하였고, 하루 마무리 시간이나 공부 시작시간에 스티커 부분만 빠르게 재인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인출된다면 스티커를 떼었는데, 다른 곳에 붙이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이기나 시합하면 됩니다.

**<고시문 해이실 법 안전>**

고시문, 해이실, 법·안전은 일주일 분량으로 나눠 매일 정해진 분량을 암기하였습니다. 고시문과 안전 관련 법은 주로 타이핑으로, 해이실은 개각론과 같이, 강의를 듣고 단권화한 요약본을 중심으로 암기하였습니다. 해이실 역시 방대한 양이므로 이론 공부와 같이 목차를 만들어 백지쓰기나 말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역시 기출문제를 옆에 두고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분석하며 암기하였습니다. 해이실은 유아임용 공부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2차 시험에도 너무나도 중요하니 우리는 걸어다니는 해이실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건강 안전 문제가 확실히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전 기출에서는 암기를 해야만 쓸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곤 했는데 점점 실제 상황 관련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 암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유아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부 방식이 올해 시험에 적중한 것 같아 어떻게든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고시문	신	의 / 중론(성격, 목적, 목표)	사 / 중론(구성의 중점)	예 / 중론(편성운영)	자 / 중론(교수학습)	중론(평가)
7대 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북법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통안전	감염병 및 약물 오용남용예방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재난대피안전교육	
건강	건강교육~ 정신건강	영양관리	감염병	건강안전 관련 법		
안전	실내외, 아동실종	교통	약물 오남용, 전자 미디어	성폭력, 아동학대	재난안전	응급처치
응급처치	1-3	4-6	7-9	10-12	13-16	17-19
해설서	누리과정의 이해(p.8-21)	성격~목적과 목표(p.24-34)	구성의 중점(p.35-37)	편성운영 (p.38-43)	교수학습(p.44-52)	평가(p.52-55)
이해·실행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의 놀이, 놀이에 대해 묻고 답하기	1.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의 역할	3. 협력자로서의 교사	2.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 - 편성하기	2.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 - 교수학습 실천	2.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 - 평가하기
사례법	놀이 실행자료 사례	놀이 이해자료 사례1-5	놀이 이해자료 사례 6-10	놀이 이해자료 사례 11-15	놀이 이해자료 사례 16-18	놀이 이해자료 사례 19
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사법	윤령	윤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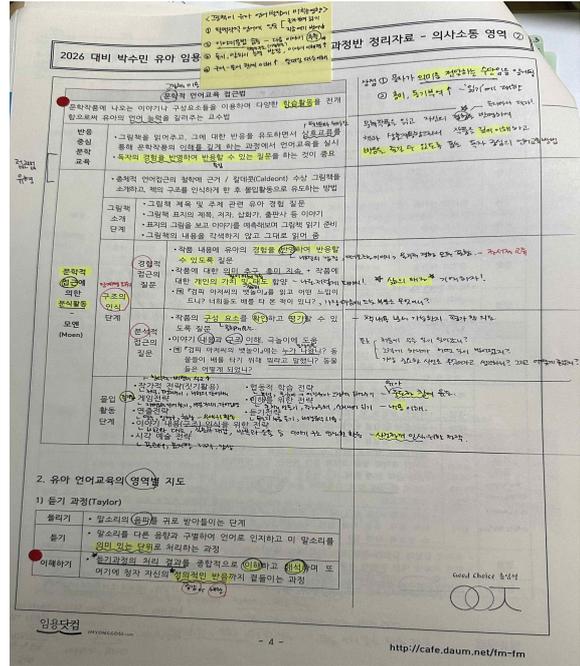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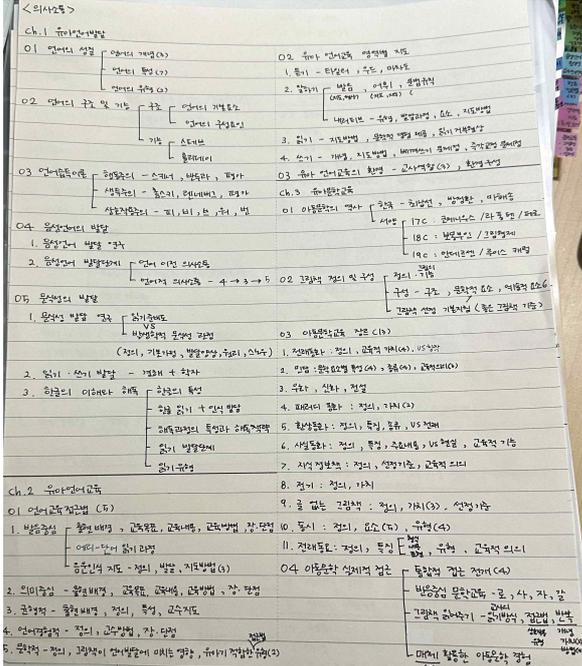
**<일주일 고정 계획표>**

**<백지 쓰기>**

앞에서 설명 드린 말로 인출하기와 더불어 백지쓰기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백지쓰기의 핵심은 '방대한 이론의 구조화'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목차를 만들어서 목차를 보고 하위 내용을 인출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과목에서 무슨 단원의 내용을 인출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상기하며 컴퓨터 파일 안에 또 다른 파일이 열리고 관련 내용이 나열되는 것과 같이, 다른 소단원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단단히 구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백지쓰기는 매일매일 쓰고 바로 버렸기 때문에 따로 남아있지 않으나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생각나는 대로 핵심 단어를 쓰고 동그라미를 치며 주절주절 써내려갔습니다.

작년에도 백지쓰기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목차를 보고 백지쓰기를 한 것은 동일하나, 단순히 목차를 보면서 암기한 내용을 인출하기만 했습니다. 인출할 때는 잘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빠르게 인출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대로된 구조화가 되지 않아 방대한 암기내용 속에서 답을 찾아내느라 시간도 오

래 걸리고 많이 헛갈렸습니다. 처음에는 목차를 만들고 백지쓰기를 하되, 반드시 목차도 백지로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목차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1번은 평가 관련 문제, 2번은 놀이, 3번은 해이실 관련 문제가 나오는 등 들쭉날쭉 하니 목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탁탁탁 건드리며 빠른 인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차 및 요약본 예시>

<논술>

논술 강의는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작년에 논술 강의를 직강으로 들은 경험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시간을 최소한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문제를 시간 안에 풀고, 모범 답안을 보고 분석한 후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해설 강의를 들었습니다. 논술 강의를 종강된 후에도 문풀 시기에는 주 3회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고 모고 시기에는 틈 날 때마다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으로 기초반과 실전반의 문제를 3번씩 돌릴 수 있었습니다.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것에 충실하게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요도를 작성하고 바로 배점을 확인하며 놓친 부분이 없는지 늘 확인하였고, 조건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유와 기대효과를 꼭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논술 역시 개각론의 암기가 탄탄히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에 근거하여 논점에서 묻는 이론을 인출하여 작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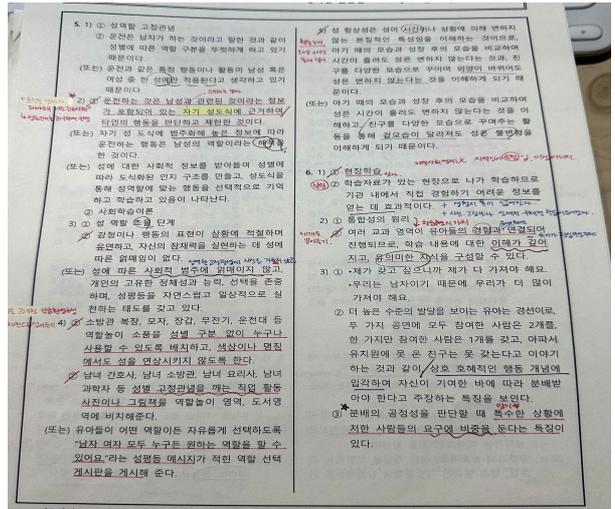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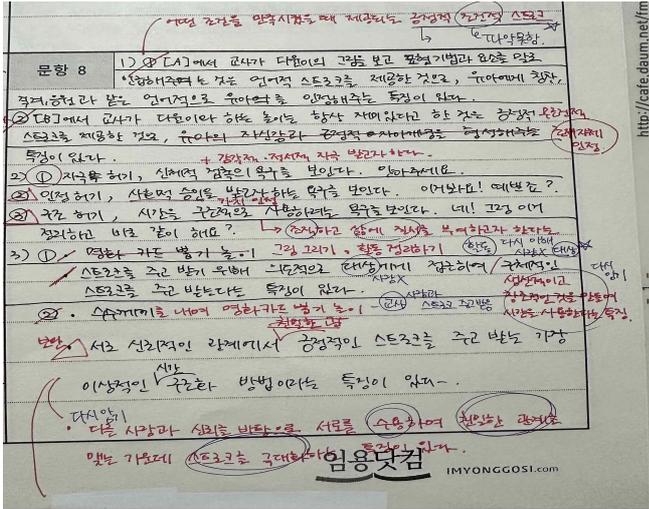
<스터디>

3월부터 친한 선생님들과 구루미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전 8-12시 캡스터디를 통해 오전 시간 공부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에 맞춰 기출 변형 스터디를 함께 진행하여 기출을 더욱 탄탄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시는 13~25학년도의 기출을 (13-16, 17-20, 21-25) 세 파트로 나눠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한 파트씩 맡아 밴드에 문제를 올리고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제자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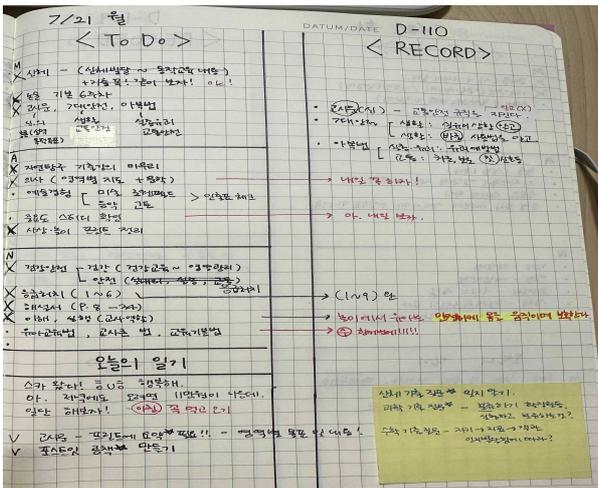


이 출제되니 다양한 방향을 생각하는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풀 오답 예시>

나아가 개각론을 다시 돌리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외웠던 이론을 다시 외울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7~8월 공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풀 진도에 맞게 개각론 암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 오전에 부영역, 오후에 주영역, 저녁에 암기해야 할 것(고시문, 해이실, 법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지루하거나 컨디션에 따라 순서를 바꿔가며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다 못하는 날도 있었고 밀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 화살표로 표시하고 다음날 꼭 채워 넣거나 일요일에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영역은 무조건 강의 전날까지 전범위를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주영역을 우선으로 공부했습니다.



<7-8월 플래너 예시>

• 9~10월(모고)

가장 실력이 오르면서도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시간은 측정하지 않았으나 5시에 기상하여 온종일 공부하고 12시에 잠에 들었습니다. 바닥나는 체력에 지칠 때마다 서서 공부하였습니다. 밥도 서서 먹으며 계속해서 말로 인출했습니다. 이때는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으로 공부를 하였고, 하루에 개각론 한 과목씩 인출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이나 사회관계는 하루에 모두 인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음주에는 못한 부분부터 하면 된다.’, ‘소인에게는 8번의 남은 일요일이 있다.’ 등 합리화를 하며 무너지지 않고 같은 텐션으로 공부하고자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기에 모든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전 범위를 같은 강도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를 내기 어려웠고 끌려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족한 부분이 보였고 이 부분만 일단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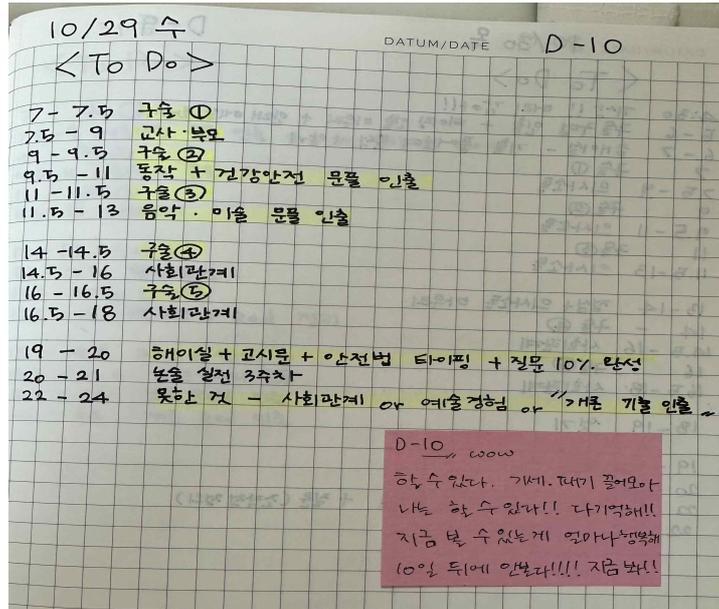
친한 선생님과 모고 인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본 후 당일에 학원에서 남아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오답한 후, 일요일 오전에 전화로 틀린 문제에 대한 답을 다시 인출해보거나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새로운 이론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날 암기한 것을 바로 인출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암기를 할 수 있었고, 문제 접근 방식과 답안 진술 방식을 공유하며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갔습니다.

시험 12일 전부터 함께 올인하는 선생님과 함께 전화 인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는 떨어져가는 체력이 슈로 인해 낮아지는 긴장감을 높이고자 오전 7시, 9시, 11시, 14시, 16시 하루에 총 5번 30분 이내로 진행하였습니다. 단계 위주로 개각론에서 한 문제씩 질문하고 답변하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을 할 수 있었고 인출이 잘 되지 않으면 긴박함과 조바심을 느끼며 정신 차리고 외웠습니다.

*october*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9	30	1	2	3	4	5
• 성팔 • 신 • 윤 • 논술 13주 기술	• 사 • 의 • 윤 • 논술 13 기술	• 놀 • 사 • 윤 • 실전 7주차	• 교 • 예 • 윤 • 실전 8주차	• 부 • 자 • 윤 • 실전 8주차 과제	• 모고 5주차	• 모고 5주차 오답 인출 • 개각론 부족한 부분 암기
6	7	8	9	10	11	12
• 성팔 • 신 • 윤 • 실전 1주차 과제	• 사 • 의 • 윤 • 실전 2주차 과제	• 놀 • 사 • 윤 • 실전 3주차 과제	• 교 • 예 • 윤 • 실전 4주차 과제	• 부 • 자 • 윤 • 실전 5주차 과제	•	• 해이실 • 건강안전
13	14	15	16	17	18	19
• 성팔 • 신 • 윤 • 실전 6주차 과제	• 사 • 의 • 윤 • 실전 7주차 과제	• 놀 • 사 • 윤 • 논술 25 기술	• 교 • 예 • 윤 • 논술 24 기술	• 부 • 자 • 윤 • 논술 23 기술	• 모고 6주차	• 모고 6주차 오답 인출 • 개각론 부족한 부분 암기
20	21	22	23	24	25	26
• 성팔 • 신 • 윤 • 논술 22 기술	• 사 • 의 • 윤 • 논술 21 기술	• 놀 • 사 • 윤 • 논술 부족한 문제	• 교 • 예 • 윤 • 논술 부족한 문제	• 부 • 자 • 윤 • 논술 부족한 문제	• 모고 7주차	• 모고 7주차 오답 인출 • 개각론 부족한 부분 암기
27	28	29	30	31	1	2
• 성 • 신	• 사 • 의	• 발 • 사	• 놀 • 예	• 교 • 자	• 부 • 윤	• 성팔 • 신의
3	4	5	6	7	8	9
• 사 • 사예	• 교부 • 차운	• 성사팔 • 신의사	• 놀교부 • 예자운	• 개론 전범위 • 각론 전범위	• 유아임용 필기 시험	•

**<먼슬리 플랜>**



<데일리 플랜>

**3. 2차 준비 방법**

1차 시험이 끝난 후 일주일 정도 재정비를 하고 2차 강의를 직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1차에 대한 가채점은 하지 않았으며 일단 합격했다 생각하고 2차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1차 합격 후 스터디원을 구해 3명에서 2차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은 자체출제 지역인 뿐만 아니라 과정안도 있었기 때문에 남은 26일을 실 틈 없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적극 활용하여 기출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과정안은 형식에 맞춰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업로드한 후 서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과정안과 해주시는 피드백을 보며 체계를 잡아간 것 같습니다.

수업실연과 면접 역시 기출을 중심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거나 주 3회(월수금) 비대면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주말마다 노량진 스터디룸에서 수업실연, 면접 한 개씩 연습하였습니다. 수업실연은 기출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점차 조건을 추가하여 연습하였고, 면접은 시책을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어 연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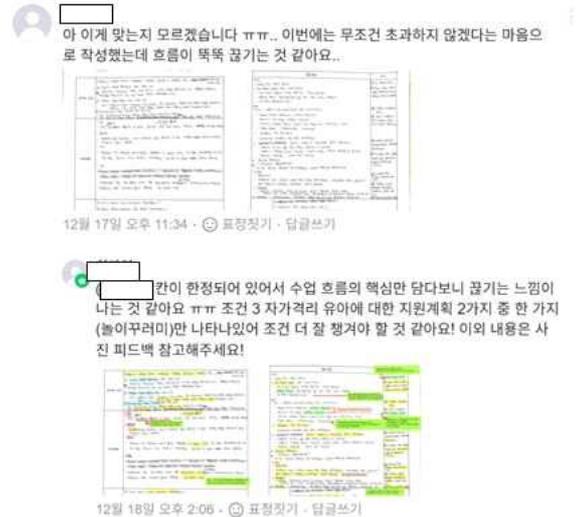
시책은 우선 봐야할 시책의 목록을 정리하고, 분량을 나눠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조언에 따라 시책은 핵심 단어 위주로 암기하고 면접에서 의미, 실천 방안 등으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했습니다.

저는 2차 시험 준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면접과 수업실연에서는 계속해서 말을 더듬었는데 이를 고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조리 있게 말하고 싶은데 생각하는 속도가 느리니 자꾸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 받는다는 생각에 주눅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는 떨어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자! 말은 잘 못해도 사랑이 넘치는 교사임을 보여주자' 마음 하나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도, 조건 충족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태도 역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무엇보다 기세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떨리고 염소가 됩니다.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의 역량을

펼치시면 됩니다. 저는 면접 11번 수업실연 12번을 뽑았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하며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평가실에서는 활짝 웃으면서 큰 목소리로 조용한 교실을 가득 채웠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 중: 000~ * 대면: 13:00~14:00 * 시책: 밴드 임포드 기한 표시			* 계획하여 있는 부채증 * 자유롭게 공부, 공부하고 싶은 문제는 반드시 기록하여 * 문제 수업 자유롭게 가능	* 수업은 서울 문제 * 문제 풀기 * 연습 시 반성작성할 * 원문 포함하기	12/11 목	12/12 금	12/13 토	12/14 일
12/15 월	12/16 화	12/17 수	12/18 목	12/19 금	12/20 토	12/21 일		
<밴드> 면접: 2023 서울 <중> 수업: 2021 서울	<밴드> 과정안: 2023 서울 수업: 2022 서울 면접: 시책, 반성, 문제 만들기 (최소 3문제)	<밴드> 면접: 2022 서울 과정안: 2022 서울 시책: 주요업무 <중> 수업: 2020 서울	<밴드> 과정안: 2021 서울 수업: 2019 서울	<밴드> 면접: 2021 서울 시책: 미래 2030 <중> 수업: 2018 서울	<대면> 면접: 2020 서울 수업: 2017 서울	<대면> 면접: 2019 서울 수업: 2017 서울		
12/22 월	12/23 화	12/24 수	12/25 목	12/26 금	12/27 토	12/28 일		
<밴드> 면접: 서울 2018 / 2019(후) / 2019(전) 수업: 2024 평가원	<밴드> 과정안: 2025 평가원 <중> (3:00~) 수업: 2025 경기	<밴드> 면접: 서울 2018 / 2019(후) / 2019(전) 과정안: 2018 서울 시책: 민생교육 <중> 수업: 2023 경기원	<밴드> 과정안: 2024 경기원 수업: 2024 경기	<밴드> 면접: 2017 서울 / 시책: 반영 문제 만들기 수업: 2022 평가원 시책: 이공교육 <중> 수업: 2023 경기	<대면> 면접: 평가원 2025, 2024, 2023 수업: 박병 문제	<대면> 면접: 연습문제 수업: 활동유형 자물		
12/29 월	12/30 화	12/31 수	1/1 목	1/2 금	1/3 토	1/4 일		
<밴드> 면접: 경기원 2개 <중> 수업: 활동유형 자물	<대면> 과정안: 2020 서울 수업: 활동유형 자물 시책: 서울시 교육과정	<대면> 면접: 주체별 + 시책 수업: 활동유형 자물	<대면> 면접: 주체별 + 시책 수업: 활동유형 자물 시책: 교육감 신년사	<대면> 면접: 주체별 + 시책 수업: 활동유형 자물	<대면> 면접: 주체별 + 시책 수업: 활동유형 자물	<대면> 면접: 주체별 + 시책 수업: 활동유형 자물		
1/5 월	1/6 화							
자물	자물							



<2차 스터디 계획표 및 과정안 밴드 스터디 예시>

4.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

잘 자지 못했습니다. 간절할수록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할수록 잠을 못잤습니다. 밤을 새우기도 했으며 잠이 오지 않을 땐 자지 않았습다. 하나라도 더 보자는 생각으로 오답한 답안지를 보거나 요약본을 훑었습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목차를 그리며 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잔병치레 없이 1년을 잘 보낸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이켜보면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여서 체력소모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이 가장 안정감 있고 편안해서 집공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가끔씩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 컨으로 인한 전기세가 무서울 때, 긴 휴가기간으로 인해 가족들이 집에서 놀 때 등 공부가 너무 안될 때는 스터디카페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5. 스트레스 극복 방법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럴 경우 냅다 울었습니다. 울면서 침대에 누워있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 속마음을 필터 없이 휘갈기며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땐 혼자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또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거나 맛집을 가며 하루를 통으로 off를 하는 것이 더 마음이 좋지 않아 어떻게든 책상에 앉아 혼자 해결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방법이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각자만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이 있을 것이니 상황에 맞게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소감 (공부하며 느낀 점)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올해 공부하며 가장 많이 든 생각은 '나도 할 수 있다.' 였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며 공부하니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더 필요하겠다. 이것에 더 집중하자' 등과 같이 확신을 가지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1차 합격장을 보고 "엄마 나도 할 수 있어"라

고 말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을수록, 성장할수록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순간이 올해 들어 가장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며 교류 없이 외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며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목표를 위해 공부하는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열정으로 꽉 채운 강의실을 보며 저도 강한 동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7시 반까지 학원에 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학원 문 열기를 기다리고, 오답을 분석하며 학원 문을 닫고 집에 간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값집니다. 공부는 힘들고 괴롭고 지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온 저에게 박수민 교수님과 함께 공부한 선생님들의 열정은 유아 교사로서 너무나도 많은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런 저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 차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